

전북 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 '한마음'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단체간 협업논의가 한창이다. 14일 개최된 '전국 체육단체·관계기관 연석회의'에 17개 시·도 체육회와 시·도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국내 선수모집이 예측 가능하고 지역과 종목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채택된 시도 및 종목별 쿼터제(선수배정)와 대회참여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 지원책이 논의됐다. 생활체육 국제종목대회의 특성상 대회 기간

전국 시도 체육회·체육부서 관계자 연석회의 종목 쏠림현상 방지 위해 쿼터제 도입 등 논의

이 길고(9일) 평일이 6일이 된다는 점은 국내 참가선수들의 부담이다. 이에 각 사업장별 공가(공적인 휴가)관련 복무규정과 노사간 협의를 통해 대회 참여자에 대한 공가처리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별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주최기관(IMGA)의 규약에 따라 책정

된 개인별 참가등록비에 대한 부담과 현지 체류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회 참여 진입장벽을 허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대회 마스터스대회 특성상 참가자의 연령대가 30대 이상의 장년층이 주를 이룰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별 참가신청과 더불어 단체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회등록시스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강오 사무총장은 "대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스포츠,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는 내년 5월 12일~20일까지 9일 간 전북도내 14개 시군 일원에서 26개 종목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생활체육 국제종목대회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청 태권도팀 실업연맹 종합 3위

김제시청 태권도팀(감독 천병열)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제16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여자일반부 종합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김제시청 태권도팀은 8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송미성(+73kg)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임민자(-53kg), 황혜주(-62kg), 김다빈(-73kg)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해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여자일반부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금메달을 획득한 송미성 선수는 대회 우수선수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렸다. 이번 대회는 2022년 시즌 첫 대회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회출전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꾸준히 훈련에 매진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낸 값진 성과이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철저한 준비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단체간 협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14일 전국 체육단체·관계기관 연석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 체육회와 시·도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최행남, 전국춘계남여역도대회서 3관왕



전국춘계남여역도대회에 출전한 최행남.

인상·용상·합계 '1위'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최행남 선수가 제70회 전국춘계남여역도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최행남 선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춘계남여역도경기대회에 출전해 인상(137kg) 1위, 용상(171kg) 1위, 합계(308kg) 1위를 들어 올려 81kg급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최행남 선수는 지난 2020년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에 입단해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으며, 지난해 부상을 입었지만 동계훈련을 통해 극복하고 이번 대회 정상에 올랐다. 최행남 선수는 "진안군 역도훈련장에 타 시군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러 와 같이 운동하며 더욱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향상된 기량으로 진안군을 빛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시청 조정팀, 전국대회서 선전

화천 평화배 전국대회서
금 2·은메달 1개 획득
앞서 항저우 AG 등 국제 선발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사진=군산시청 제공)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올해 첫 전국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으로 군산시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군산시청 조정팀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선수단은 여대 및 일반부 싱글스킬에서 8분5초49를 기록하며 올해 입단한 박지운 선수가 1위로 물살을 갈랐고, 무타페어에서 김영래 김채연 선수가 8분34의 기록으로 1위, 더블스킬 7분37초88의 기록으로 김채연 박지운 선수가 2위를 차지하며 첫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이번 대회에 앞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2022년 국가대표 및 청두세계대

회경기 선발전'에서 2021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6월) 국가대표에 김소영 김채연 박지운 선수가 선발됐으며 2022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정혜정, 채세현 선수가 지난해에 이어 국가대표에 재선발 됐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조정팀이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산시를 빛내주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선수단 6명 중 5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자랑스럽고 우리 조정팀 선수들이 세계에 군산시를 널리 알리는 날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하구둑 일원에서 '제19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를 개최 예정이다. /군산=김관곤 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